

폭넓은 기술교류, 활발히 진행된 경험교환

— 제 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 진행 —

공화국에서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속에 제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고상한 감정을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한 언어수단과 수법들을 많이 써왔다.

아름다운 우리 말 에두름말과 언어례절

에두름말을 언어례절에 옮겨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상한 정신적품모와 구체적인 감정에 맞는 에두름말을 찾아야 한다.

향해했다고 한다. 축전에서는 지난 시기에 진행하던 심사위원제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연단이 새롭게 마련되고 축전기간 학술토론회와 연구토론회, 기술교류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는 연구자로 등 여러가지 가치있는 제안들이 학술토론회, 연구토론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화초장식문화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화초장식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법위와 표현력이 보다 넓어지게 되었다. 청자기를 비롯한 고려자기들의 출현도 당시의 화초장식문화발전의 큰 자극제였다.

강희안의 『양화소록』은 그가 문명부 지사라는 벼슬자리에 있을 때 화초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가꾸는 과정이 기록된 경험과 원예문서적들을 참고하여 쓴 책으로서 화분꽃가꾸기법,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방법, 화초를 접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화초장식을 형상한 고려시기의 벽화



조선봉건왕조시기 화초장식을 형상한 그림

『양화소록』은 그가 문명부 지사라는 벼슬자리에 있을 때 화초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가꾸는 과정이 기록된 경험과 원예문서적들을 참고하여 쓴 책으로서 화분꽃가꾸기법,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방법, 화초를 접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금강모치

금강모치는 금강군 금강읍으로부터 은정평까지의 금강천상류에서 살고있는 잉어과에 속하는 작은 민물고기이다.



생활성은 다른 버들치들과 비슷하게 주로 물이 맑고 찬 강상류지역에서 무리를 지어산다.

금강모치는 조선의 특산종으로서 높은 산지대의 하천에 국한되어 살고있으므로 학술적의의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보호관리되고있다.

비타민의 영양적용

과학자들이 비타민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비타민A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비타민B1, B2, B6, B12 등을 포함한 비타민B복합체는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할뿐 아니라 몸 안에서 일련의 중요한 효소의 활성을 도와주어 몸안의 대사를 조절하게 한다.

떡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해먹어온 고유한 음식에는 떡이 있다. 떡은 먹는 속에 낱알가루를 섞어 만든 떡으로서 우리 선조들은 해마다 5월이 오면 햇곡을 뜯어다 떡을 만들어 먹었다.

떡을 만드는 데는 백미가루, 밀가루, 강병이가루 등 여러가지 낱알가루를 쓸수 있다. 떡은 그 맛과 향기가 특이할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다.

옛이야기

한것으로 하여 그는 더욱 유쾌해졌다. 언젠가 신재효가 친구와 함께 장거리에 갔을 때 사러 나갔을 때 있던 일

옛이야기

친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도 명색이 아전출신인 신재효가 갖이나 만들어 파는 영인바치에게 존경어를

옛이야기

『량반들은 영인바치들을 천대하고 하대하면서도 그들이 만든 것을 머리에 정히 띠고다니지 않는다. 하물며 그런 사람에게 배를 차려 말한 것이 무슨 망신스러운 일이겠나?』

단편소설 판결 (1) 글 김석문 그림 채대성

《어제 어디까지 왔는가...》. 최근에 일어난 김포비행장 투석미수사건이였다. 《학생들의 대답소리를 시들히 들려들었다.》 《박군, 여기 모인 청강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게. 필사록 간단히.》 《예.》 호기를 뿜는 대답소리에 이어 사건개요가 흘러나왔다. 《성명 유강산, 성별 남자, 년령 92세...》 《부차적인건 그만두고.》 《예, 사건일시 지난 7월 모일, 유강산은 (한)외교부장관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외교부) 장관을 김포비행장에서 들로 끼려고 시도. 돌의 크기와 무게로 보아 사람을 능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임. 특수폭행미수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음. 이상입니다.》 《됐네. 지금 검찰이나 재판소에서는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네. 20여년전에 일본으로 가려던 (대통령) 특사에 대한 탐안특사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비행 (외교부) 장관에 대한 투석미수사건이 터졌으니 꼭 필사록을 써서놓는 것 같아. 아마 누구든 책임을 지고 웃을 벗어야 할거야. 그럼 각자 예비법조인으로서 현직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기소장들을 작성해보자고 했네... 박군, 일어났던건에 마저 발표하지 않지.》

정한 (외교부) 장관을 정확히 가려본 점 그리고 사람을 능히 상해할수 있을 정도의 무게와 크기를 가진 돌을 머리높이까지 들어올렸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능력미약에 의한 감정사형으로 필치던 정 심심장재로 인한 면죄사유로는 인정될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범행대상이 (외교부) 장관이고 범행장소와 시간이 공개적이며 거대한 범행수행이 몰락적이고 무분별한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커다란 외교적손실을 가져올만한것을 고려해볼 때 징역 6년형도 가버울수 있는 리라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10조에서 처벌할수 없다고 규정된 심심장재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자를 결합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삼분차를 리용하여 비행장에 와서 범행목표로 설

6년형도 오히려 가버울수 있다고 선언했는데 여기까지에서 이의있는 사람?》 《홍교수의 물음에 교실 한쪽구석에서 손 하나가 쑥 올라왔다.》 《말해보시오.》 《손을 쳐든 학생은 배우진이다. 어느 무대연출가의 막내동생이 그는 장난기가 심한 축이었다.》 《저어. 교수님생년. 나이 90이 지났는데 늙은이에게 6년형은 너무 과한것 아니니까?》 《그럼 학생은 어떤 판결이 마땅하다고 보오?》 《물음에 배우진은 열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눈을 깜빡거리고 말을 계속 하였다.》 《키씨가 좋을것 같습니다.》 《키씨?》 《예, 이슬람교파가운데선 규탄에 쪼여진대로 키씨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은만큼 보복해주는거지요. (외교부) 장관더러 그 괴고인한테 가서 속이 시원할 때까지 돌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위협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옥에서 늙어죽을 사람도 없을것이며 공연히 여기서 머리색을 일도 없을게 아니니까.》 《하하하-》 난데없는 웃음顔を 터졌다. 배우진이 눈을 부릅뜨고 돌로 까는듯한 흥분된 신동하 내는 바람에 학생들은 책 없이 얼굴들을 가리고 떠나 없이 웃었다.》 《학생, 앉으시오.》 형법 첫머리에 쪼여진 문구가 무엇인지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 말은 성별과 종교는 물론 나이가 90이 지났건 못지않건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법앞에서 지게 되는 책임은 똑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째요. 그리고 둘째, 여기는 이슬람교파가 아니라 (대한민국) 이란 말이요. 형법적용 원칙의 첫번째와 두번째 조항을 벌써 잊었소? 박군!》 《예.》 홍교수의 부름에 박준표가 다시 법책 일어섰다. 《속주주의, 속인주의에 대해 말해보시오.》 《네, 범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기 나라의 형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것이 속주주의이고 범인이 자기 나라 사람인 이상 범죄소행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나라의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것이 속인주의입니다.》 《좋아. 박군에게 가산집수를 주겠소. 하지만 배군에게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시오! 자리에 앉소.》 홍교수의 큰소리에 배우진이 두손을 장난스레 펼쳐보인것을 내놓고는 교실안에 정숙이 깃들었다.》 《오늘 과제검열에서는 박군이 모범이요. 박군, 자네 지금 바로 나가 집속부임 두 될것같지만, 팬텀아. 부장검사님의 아들이 피소 다르거든. 알잖이 축망해.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5급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어. 계속 그렇게 놀다가 앞으로 축번이도 못할줄 아시오. 하긴 그런 내 상관할바가 아니라. 제 밤그릇은 각각 알아서 잘 챙기도록. 그런 그렇지 못한 사람... 없소? 모두 같은 생각인가?》 《손 든 학생이 없었다.》 《아무도 없어? 기소가 없으면 변호가 따라야 하는데. 하긴 뭘 별로 그래봤자 승소가량은 없어버는 사건이니가 충분히 리해할수 있지. 그럼 좋아, 각자 준비해온 기소장들을 바치도록 하지.》 이렇게 말한 홍교수가 공연

히 안경을 추스르며 책속에 눈을 박는그때 《저요. 이의 있는데요.》 하는 소리가 별안간 교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어지간히 놀란 홍교수가 고개를 수긏하고 손이 들린쪽을 안경너머로 넘기지 바라보았다. 《누가? 아. 모든것에 대해 항상 무마명해하는 친구. 그럴줄 알았소. 반박이 없길래 난 자네가 오늘 결석한줄로만 알았지.》 손을 쳐든것은 다름아닌 민제식이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래, 말해보요. 뭐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런 기회를 배우진이 놓칠 리 만무하였다. 《아마 형량일겁니다. 그게 저만 작다는건가? 하지만 미수죄로 목을 달아낼수야 없는노릇 아니니까.》 《용서하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조용하시요. 민군만 입을 열겠소.》 홍교수의 말에 민제식은 교실안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뜻밖에도 단호한 투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전 완전무죄를 주장합니다. 그 로인은 무죄입니다.》 순간 우우우 하고 벌떼우 는듯한 소리가 교실을 덮쳤다. 홍교수도 저이기 놀란듯 얼굴이 굳어져버렸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교수의 입가에 흥미진진하다는듯한 표정이 천천히 떠올기 시작했다.

